

사설

‘민족공동체본부’ 한 돌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와 통일사업을 전담하는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지난 8일 ‘불교의 평화정신과 남북화해’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창립 당시의 초발심을 상기하고 통일보살행의 서원을 다시금 다졌다.

우리는 지난해 이맘 때 이 난을 통해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창립을 크게 반겼다. 민족구성원의 고통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큰 원을 세운 것에 대한 기쁨이었으며, 질곡의 현대사의 현장에서 불교는 비껴 서있었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도했다. 또 불교계의 대표종단으로서 통일운동의 기운을 널리 퍼지게 한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 기쁨과 기대감을 지금도 여전하다.

아직도 남북은 화해·협력의 단계에 정착하지 못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다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조금은 풀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통일의

문제가 남북의 관계로서만 풀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열원이 금강석처럼 굳고, 쉬임없이 나아갈 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은 정부 당국간의 협력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민족의 정서 형성에 기여해 온 불교의 역할은 그래서 어느 종교와 단체보다 크다. 선조사들께서는 이미 돌아닌 원유의 가르침을 펼쳐보였다. 보배같은 가르침을 이어받아 분단의 예토를 통일정토로 가꿔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주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대해 파악하고, 불교의 통일론을 가다듬는 데 주력했다. 이제는 통일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생·화합의 불교정신이 삶 속에 깃드는 통일일 때 진정한 의미있는 통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운동은 불교의 가르침을 펼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상생·화합의 가르침을 불자와 국민들이 체화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

‘적신히 군포교’ 대책 없나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들 한다. 가장 힘든 한계상황과 나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의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진리 속에서 참살을 살게 하는 기회가 되며, 이때 손을 내밀어주면 약한 마음에 쉽게 손을 잡고 기대며 그 상태가 평생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금어장(漁場)이라고 하면 고기를 뜻하므로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사상과는 단어 자체가 모순되므로 황금어장(養魚場)이라 불러야 옳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환경이 군포교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 강대남 법사가 밝힌 자료는 이러한 인식에 더욱 확실한 증거로 다가가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개신교는 상병, 병장으로 올라갈수록 신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불교의 숫자는 병장이 되면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군법사의 노력이 초기의 신자확보에 영향력을 주는 반면 그 이후에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불교계 전반의 인식부족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짙 높은 포교인력을 양성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보살행으로서의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법당이 있는 부대에 비해 없는 부대의 불자 인구가 30%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아도 법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범종단적 차원에서 법당이 없는 부대를 가려내 1부대 1법당 1법사의 원칙을 세워 이를 실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밀도 있는 신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교프로그램을 개발, 표준화해서 법사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제대하면 사찰의 청년회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오래 전에 군순단에서도 논의했다.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그 사이 장병들은 불교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군포교는 의무를 넘어서 불교의 사찰이 걸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달라이 라마 방한 허용하라”

정대총무원장 “종단차원 성명서 내겠다”

방한준비위, 대통령 면담·행정소송 추진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달라이 라마 방한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유보 통보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과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5일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불자들이 달라이 라마가 오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 거부할 경우 조계종 총무원도 방한허용 촉구 성명서를 내겠다”며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관련기사 3면)

때가 되면 오도록 조치하겠다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놓고 중국과의 외교문제만을 이유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6월 중국정부의 국빈방문 초청은 달라이 라마와 연관돼 있어 중국 방문을 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박광서)는 4일 만해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달라이 라마 방한시기를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와 결정된 후 중국과의 외교적 파장 최소화 등에 대하여 준비위와 논의해 오면 정부가 최근 들어 다시 방한 허용에 대한 유보적 입장으로 급변하여 우리를 당혹케

하고 있다”며 “방한을 즉각 허용하는 입장을 16일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는 또 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14~16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메리 로빈슨 UN고등판무관과 곤나르 베르게 노르웨이 노벨평화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18조와 19조를 위반했기에 고발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방한준비위 정종국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중합청사 앞에서 100배 1인 릴레이시위와 16일까지 방한불허시 정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10월29일~11월1일

3급 승가고시 시행

조계종 일정확정

올해 처음 실시되는 조계종 3급 승가고시가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3박4일간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에서 시행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5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지난 5월말 제5차 고시위원회에서 결의한 3급 승가고시 시행내용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관련 승가고시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올해 시행되는 승가고시는 1991년 1월1일부터 1992년 12월31일까지 사미(尼)계를 수지한 스님 중 3급계를 수지하고 분한신고를 필한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특성과 목에 대한 필답고사가 아닌 산림정소승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8월31일까지 조계종 교육원에서 소정의 입고지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95년 이후 출가자들은 2008년 시행예정인 승가고시에서 고시산림과 필답고사를 모두 거쳐야 하며, 90년 12월31일 이전 출가자들은 승가고시를 거치지 않아도 이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승가고시위원회 위원장 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7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5년 이전 수계자에 한해 산림형식으로 치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승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교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승가교육체계 불만” 33%

10명중 6명 졸업후 선원수행 희망

강원 16곳 8백명 조사

강원 학원의 30% 이상이 현재의 승가교육 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원 10명 중 6명은 강원졸업 후 선원에서 수행을 계속할 생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 교육원이 전국 16개 강원 8백여 명의 학원을 대상으로 99년 6~7월 두 달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강원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기본·전문교육 등의 체계로 이뤄지

고 있는 종단의 승가교육체계에 대해 ‘적당하다’(36.8%)는 견해와 ‘부적당하다’(33.4%)는 견해가 한계요 범의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미 학원(27.4%)보다 사미니 학원(36.7%)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주입식 교육방식 및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내용, 교육교역자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해 학원의 62.3%·606명은 선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국대·중앙승가대 등 일반대학이 12.4%·101명도 나타났다. 선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정규대학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54.2%)는 의견이 ‘찬성한다’(26.8%)는 의견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신홍사 새주지 선출

법장스님 사퇴...19일 산중총회

조계종 3교구분사 신홍사는 19일 산중총회를 열어 총무원에 임명을 요청할 주지후보자를 뽑는다. 현 주지 법장스님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

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훈)는 10~12일 입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KBS 박관상 사장 등 7대 종교지도자와 방송 3사 사장들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전 청소년 문화 조성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종교지도자들이 방송사 사장들을 초청해 이뤄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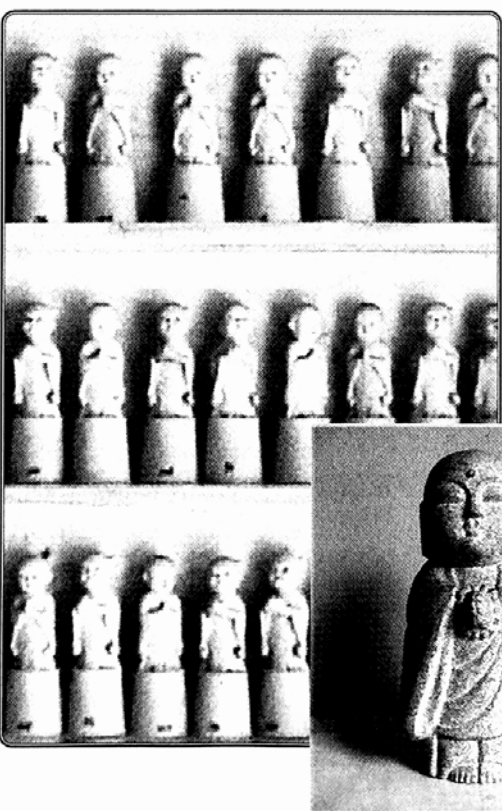
교육부 시정요구 35항목 불교관련 전문

1면 불교왜곡서 계속 문명대 교수는 “일본에서도 진보적인 학자들은 백제 등 한반도에 불교문화가 전래된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학자들은 아직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은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사의 교과서 25개 항목, 기존 7종 교과서 10개 항목 등 모두 35개 항목

의 한국관련 기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여기에 불교관련 항목은 들어있지 않다. 이는 외교적 문제가 걸린 사안 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학자들은 역학관계 등을 고려한 항목에 국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와 문제제기가 따르겠지만 불교계에서도 종단과 학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문제제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현진 기자 jiny@buddhapa.com



현대만평 박구원



구담사 태아 천도 발원 10주년 불 태아·영아 영가 천도제

증 명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큰스님, 건봉사(前 심원사) 영도 주지스님
저희 구담사는 최초로 태아 영가 천도 도량으로 개설한지 10주년을 맞이하여 49일 태아 영가 천도제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수태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되기에 자신이 육체에 대하여 애착을 갖게 되므로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악업의 과를 쌓는 까닭에 부모와 형제에 대한 원망으로 무주 고훈이 되어 원결을 맺게 됩니다.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태아를 살생하여 큰 죄를 지었다더라도 佛法으로 진참회 하고 천도공양하면 죄없이 소멸되고 태아의 영혼은 천도되어 이고득락 한다고 하였다. ※ 지극한 마음으로 영혼을 달래어 천도제에 동참하십시오. ※ 특히 대악업시, 취업, 사업지는 기도 동참하십시오. ※ 특히 대악업시, 취업, 사업지는 기도 동참하십시오. ※ 특히 대악업시, 취업, 사업지는 기도 동참하십시오.

- 일시: 입제일 : 양력 7월 7일 (음력 5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회향일 : 양력 8월 24일 (음력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 동참금 : 49일 기도 동참금 5만원
- 태아 위패비 : 태아 영가 1위당 5천원 (제사는 3재, 5재, 7재) 매만 올림
- 준비물 : 우유, 분유, 사탕(과자류) (영가 옷은 사찰에 있음)
- 입금계좌 : 국민은행 : 217-01-0339-914 (예금주 : 구담사)
- 교통안내 : 동서울 터미널 → 일동, 상봉 터미널 → 일동 → 연곡 4리 하차, 수유리 터미널 → 일동, 일동 국민은행 앞 구담사 버스 수시 운행
- 법회 당일 구담사 버스 운행 : 오전 8시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출발
- 문의 : Tel (031) 533-2855 Fax (031) 532-2441
- ※ 지방신청 접수 가능 합니다. ※ 위패 관개로 미리 접수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담사 지을합장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